

주변인의 영향에 따른 근로자의 음주 동기 및 음주 행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tivation for Alcohol Use and Drinking Behavior of Employees by Social Pressure

김 희 걸*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절주사업이 알코올 관련 보건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 피해 관련 각종 조사 자료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01년 현재 18세~64세 알코올 사용 장애 인구는 2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로 추정되고(이충경, 2001),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조기사망 및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등으로 인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 9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정우진 등, 2006). 특히 음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송현중, 2005), 이러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GDP의 2.86%로 미국 2.3%(‘92년), 일본 1.9%(‘87년), 캐나다 1.1%(‘92년), 호주 1.0%(‘92년)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정우진 등, 2006).

음주피해 관련 조사 결과는 절주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절주사업은 그 동안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이라는 막연한 목표 아래서 보건소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및 홍보 위주로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그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로 말미암아 절주사업은 ‘개인 및 사회의 음주피해 감소’라

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서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음주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인에게 음주로 초래할 수 있는 혜택과 고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스스로 음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절주사업의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절주사업 실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로자의 대부분인 97.2%가 음주자이며(이수영, 2006), 음주자 가운데 60% 이상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천성수와 박종순, 2000).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음주율, 음주 빈도, 음주 문제 등의 비율 또한 일반인에 비해 높고 서구 근로자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권규영, 2003; 이희종과 제갈정, 2002; 제갈정, 2001). 따라서 근로자를 중심으로 절주사업의 실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제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이나 알코올 중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음주 실태 조사와 음주 관련 요인 및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김인석과 이연희, 2003; 박셋별, 2001; 이수영, 2006; 정태연 등 2001; 최승희 등, 2001; 함정화 등, 2001), 음주 동기나 음주행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 경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hgkim@kyungwon.ac.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업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변인의 영향이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근로자의 음주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주사업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를 분석한다

셋째, 주변인의 영향에 따른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지역 공업단지에 소재한 산업체 중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8개 제조업체의 근로자로 설문조사에 동의한 경우 선정되었다. 대상자 중 설문 문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응답하지 않는 등 설문 조사에 부실하게 응답한 7개의 자료를 제외한 34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수집방법

공업단지 내 보건관리자 월례교육을 이용하여 2시간의 절주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 사업장소속 보건관리자에게는 별도로 설문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주었다. 자료 수집은 보건관리자가 근로자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한 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가 소요되었다.

3. 조사도구

1) 주변인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Windle(1996)이 사용한 주변인의 음주비율 측정법, 즉 '친하게 지내는 친구 또는 직장동료(가족)의 수'와 '술을 즐겨 마시는 친구 또는 직장동료(가족)의 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주변인의 영향을 평

가하는 음주비율 측정법을 적용하여 가족과 친구 및 직장동료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문항은 가족과 친구 및 직장동료를 구분하여 4문항이며, 최종 분석에서 사용한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다. 내적일치도 Chronbach' α 는 가족의 음주 영향 0.88, 직장동료의 음주 영향 0.73 이었다.

2) 음주 동기 척도

이 척도는 Cox와 Klinger(1988)의 음주동기 분류 모형에 따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언어보고 자료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과 Cooper(1994)의 동조동기 문항을 기초하여 신행우(1998)가 제작한 고양, 대처, 동조, 사교 등 네 가지 음주동기에 본 연구자가 긍정을 추가하였다. 이 척도는 고양, 대처, 동조, 사교 및 긍정의 다섯 가지 음주동기를 측정하고 있으며, 각각 음주 동기는 4개 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이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설문은 술을 마시는 이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응답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의 재점은 각 문항의 응답 척도를 합하여 음주 동기의 점수를 산정하였다. 내적일치도 Chronbach' α 는 고양 동기 0.79, 대처 동기 0.87, 동조 동기 0.79, 사교 동기 0.87, 및 긍정 동기 0.90 이다.

3) 음주 행위

음주행위는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이하, AUDIT-K)와 한국경제경영연구원(2005)에서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AUDIT-K는 세계보건기구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이하, AUDIT, Babor 등, 1992)를 변안한 알코올 위험 사용, 알코올 의존 사용, 알코올 유해 사용 등 10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알코올 위험 사용은 술을 자주 마시는 정도와 술을 마실 때의 음주량을 나타내며, 알코올 의존 사용은 절주 정도와 음주 후 경험을 나타내고, 그리고 알코올 유해 사용은 음주 후 죄책감이나 음주로 인한 사고 등을 나타낸다. 본 연구자는 이 질문지에 작업장에 적합한 한국경제경영연구원(2005)에서 작성한 3문항을 위험한 알코올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각각 2문항과 1문

항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음주 행위는 위험한 알코올 5문항, 알코올 의존증후군 4문항, 유해한 알코올 4문항 등 13문항이다.

문항의 설문에 대해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에 0점을 부여하여 4점까지 부여되어, 그 범위는 0-52점이다.

내적일치도 Chronbach' α는 알코올 위험 사용 0.70, 알코올 의존 사용 0.68, 알코올 유해 사용 0.72이다.

4. 분석 방법

분석방법은 주변인의 영향, 음주 동기, 음주 행위 등에 대한 평균값, 빈도 및 비율 등을 도출하기 위한 빈도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변인의 영향에 따른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 One-way ANOVA 등이, 주변의 영향, 음주 동기, 음주 행위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 검증이 실시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 79.5%, 20.5%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29세, 30-39세, 40세 이상이 각각 37.2%, 42.8%, 20.0%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이 각각 38.7%, 16.4%, 44.9%를 보였고,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미혼과 기혼이 각각 51.3%, 48.7%였다. 경력에 있어서는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각각 32.6%, 11.4%, 27.0%, 29.0%였고, 동거 가족으로는 혼자, 2명, 3명, 4명, 5명 이상 각각 13.5%, 20.5%, 33.4%, 23.5%, 9.1%였다.

2. 음주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

주변인의 영향의 기술적 통계값은 <표 2>에서와 같이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 가족의 영향의 평균값이 각각 0.61, 0.31로 나타나, 직장동료 및 친구와 가족이 근로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이 가족의 영향보다 2배 정도 높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41), 단위: 명, %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	남자	271	79.5
	여자	70	20.5
나이	20-29세	127	37.2
	30-39세	146	42.8
	40세 이상	68	20.0
학력	고졸	132	38.7
	전문대졸	56	16.4
	대졸 이상	153	44.9
	결혼여부	미혼	175
결혼		166	48.7
근무경력	3년 미만	111	32.6
	3-5년 미만	39	11.4
	5-10년 미만	92	27.0
	10년 이상	99	29.0
동거 가족 수	혼자	46	13.5
	2명	70	20.5
	3명	114	33.4
	4명	80	23.5
	5명 이상	31	9.1
계		341	100.0

<표 2> 주변인의 영향

주변인의 영향	총점	평균	표준편차
직장동료 및 친구 영향	84.64	.62	.30
가족 영향	42.30	.31	.28

3.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

1) 음주 동기

음주 동기를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음주 동기는 고양 동기, 대처동기, 동조 동기, 사교 동기, 긍정 동기의 평균값이 각각 2.46, 2.57, 2.38, 3.24, 2.91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의 음주 동기는 사교 동기, 긍정 동기, 대처 동기, 고양 동기, 동조 동기

<표 3> 음주 동기의 기술적 통계값

음주 동기	총점	평균	표준편차
고양 동기	9.81	2.46	.78
대처 동기	10.26	2.57	.83
동조 동기	9.48	2.38	.72
사교 동기	12.94	3.24	.69
긍정 동기	11.62	2.91	.81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다.

2) 음주 행위

연구대상자의 음주 행위의 기술적 통계값은 <표 4>에서와 같이, 알코올 위험사용, 알코올 의존사용, 알코올 유해사용의 평균값이 각각 1.70, 0.74, 0.54로 나타나 알코올을 위험 사용, 알코올 의존사용, 알코올 유해 사용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다.

<표 4> 음주 행위의 기술적 통계값

음주 행위	총점	평균	표준편차
알코올 위험사용	8.48	1.70	.65
알코올 의존사용	2.96	.74	.74
알코올 유해사용	2.16	.54	.63

4.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

1)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음주 동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음주 동기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에서와 같다. 음주를 하게 되는 동조 동기는 성에 따라 t값이 2.024로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의 평균값이 2.45로 여자의 평균값 2.15보다 높았다. 긍정 동기 또한 성에 따라 t값이 2.218로 5% 미만 수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음주 동기 (N=341)

음주 동기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동조 동기	남자	271	2.45	.70	2.024*
	여자	70	2.15	.73	
긍정 동기	남자	271	2.98	.80	2.218*
	여자	70	2.61	.80	

* p < .05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음주 행위

(N=341)

음주 행위	성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t/F
알코올 위험사용	성	남자	271	1.80	3.697**
		여자	70	1.32	
알코올 의존사용	성	남자	271	.82	2.487*
		여자	70	.44	
	학력	고졸	132	.60	5.102**
		전문대졸	56	1.16	
알코올 유해사용	성	남자	271	.60	2.318*
		여자	70	.30	
	결혼 여부	미혼	175	.41	-2.419*
		결혼	166	.66	

** p < .01, * p < .05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의 평균값이 2.98로 여자의 평균값 2.61보다 높았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음주 행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음주 행위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에서와 같다.

알코올 위험사용은 성에 따라 t값이 3.697로 1%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의 평균값이 1.80으로 여자의 평균값 1.32보다 높았다.

알코올 의존사용은 성에 따라 t값이 2.487로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의 평균값이 0.82로 여자의 평균값 0.44보다 높았다. 이는 또한 학력에 따라 F값이 5.102로 1%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전문대 졸의 평균값이 1.1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 이상, 고졸이 각각 0.69, 0.60으로 이들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다.

알코올 유해사용은 성에 따라 t값이 2.318로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의 평균값이 0.60로 여자의 평균값 0.30보다 높았다. 이는 또한 결혼 여부에 따라 t값이 -2.419로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의 평균값이 0.66으로 미혼의 평균값 0.41보다 높았다.

5. 주변인의 영향별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

1) 주변인의 영향별 음주 동기

주변인의 영향에 따른 음주 동기의 평균값의 차이를

〈표 7〉 주변인의 영향별 음주 동기

(N=341)

음주 동기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F	
동조 동기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	.2 미만	39	1.84	.84	3.455**
		.2-.4 미만	58	2.26	.68	
		.4-.6 미만	72	2.22	.66	
		.6-.8 미만	68	2.58	.57	
		.8 이상	104	2.55	.78	

** p < .01.

검증한 결과는 〈표 7〉에서와 같다.

음주 동기 가운데 동조 동기는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에 따라 F값이 3.455로 1%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0.8 이상의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이 클수록 동조 동기의 평균값이 높았다.

2) 주변인의 영향별 음주 행위

주변인의 영향에 따른 음주 행위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8〉에서와 같다.

음주 행위 가운데 알코올 위험사용은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에 따라 F값이 2.467로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0.6-0.8의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이 클수록 알코올 위험사용의 평균값이 높았다. 이는 또한 가족의 영향에 따라 F값이 2.823으로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0.4-0.6의 가족의 영향에서 알코올 위험사용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를 기점으로 하여 그 아

래에서는 가족의 영향이 클수록, 그 위에서는 가족의 영향이 작을수록 알코올 위험사용의 평균값이 높았다.

알코올 의존사용은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에 따라 F값이 3.594로 1%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0.8 이상의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에서 알코올 위험사용의 평균값이 1.0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0.4-0.6의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에서 알코올 위험사용의 평균값이 0.84로 높았다.

IV. 논 의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변인의 영향에 따른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음주 동기가 사교 동기, 긍정 동기, 대처 동기, 고양 동기, 동조 동기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교 동기, 대처동기, 동조 동기, 고양 동기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

〈표 8〉 주변인의 영향별 음주 행위

(N=341)

음주 행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F	
알코올 위험사용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	.2 미만	39	1.40	.87	2.467*
		.2-.4 미만	58	1.51	.62	
		.4-.6 미만	72	1.72	.56	
		.6-.8 미만	68	1.64	.53	
		.8 이상	104	1.90	.67	
	가족의 영향	.2 미만	101	1.65	.69	2.823*
		.2-.4 미만	112	1.69	.57	
		.4-.6 미만	53	1.92	.76	
		.6-.8 미만	42	1.86	.42	
		.8 이상	33	1.00	.73	
알코올 의존사용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	.2 미만	39	.55	.71	3.594**
		.2-.4 미만	58	.41	.52	
		.4-.6 미만	72	.84	.70	
		.6-.8 미만	68	.56	.51	
		.8 이상	104	1.00	.90	

** p < .01, * p < .05

난 김순오(2005)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음주 행위 가운데 알코올 의존사용과 알코올 유해사용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 근로자들의 알코올 의존사용과 유해사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위험한 알코올 사용이 음주 행위 가운데 가장 높지만 중간점수(2점) 이하로 높지 않아 근로자들의 위험한 알코올 사용이 크게 우려할 만큼의 수준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음주 동기를 살펴보면, 음주 동기 가운데 동조 동기와 긍정 동기가 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음주 동기가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로자들의 음주 동기가 우선적으로 사교 동기에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그것은 나이나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교 동기를 제외한 다른 음주 동기 또한 나이나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를 위한 음주라는 근로자들의 음주 문화와 음주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바꿀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음주행위를 살펴보면, 위험한 알코올 사용은 물론 알코올 의존사용 및 알코올 유해사용이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변인의 영향별 음주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이 클수록 음주 동기 가운데 동조 동기의 평균값, 음주 행위 가운데 위험한 알코올 사용과 알코올 의존사용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음주 동기와 행위에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로자의 음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동료 및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장동료 및 친구들 모두가 음주를 줄이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사업장을 중심의 음주 줄이기가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변인의 영향별 음주 행위를 살펴보면, 직장동료 및 친구와 가족이 근로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의 음주 형태가 피험자의 음주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Curran 등(1997)과 Farrell (1994), 친구와 가족의 음주행동이 음주 빈도와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민규(1999),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친구 및 직장 동료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Cumsille 등(2000)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의 평균값이 가족의 영향의 평균값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음주가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음주자리가 거의 대부분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수영(2006)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음주 동기가 음주 문화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의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들의 음주 문화와 음주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바꿀 방안이 필요하며, 그러한 방안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남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개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음주 줄이기가 전개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변인의 영향에 따른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조업체 근로자 341명을 대상으로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 음주행위 등에 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들의 음주 동기는 사교 동기, 긍정 동기, 대처 동기, 고양 동기, 동조 동기 순이며, 음주 행위는 알코올 위험사용, 알코올 의존사용, 알코올 유해사용 순이었다.
2. 음주 동기 가운데 동조 동기와 긍정 동기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3. 음주 행위는, 알코올 위험사용, 알코올 의존사용, 알코올 유해사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특히 알코올 의존사용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알코올 유해사용은 기혼인 경우가 미혼보다 높았다.
4. 주변인의 영향에서는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이 가족의 영향보다 2배정도 높았으며, 대체적으로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이 클수록 음주 동기 가운데 동조 동기, 음주 행위 가운데는 알코올 위험사용과 알코올 의존사용이 높았다.

5. 음주 행위에서 직장동료 및 친구의 영향이 클수록 알코올 위험사용이 높고, 가족의 영향이 0.4-0.6일 때 알코올 위험사용이 가장 높고, 특히 이를 기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서는 가족의 영향이 클수록, 그 위에서는 가족의 영향이 작을수록 알코올 위험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사용은 직장 동료 및 친구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의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과 음주 문화를 바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근로자의 음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동료 및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장동료 및 친구들도 음주를 줄이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사업장과 남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음주 줄이기가 전개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권구영 (2003).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 간의 관계에서 음주 및 음주하위문화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순오 (2005). 성인남성의 음주행위 예측모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인석, 이연희 (2003).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25-541.

박색별 (2001). 일개 직장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에 대한 인식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22(12), 1814-1822.

송현중 (2005). 절주 및 알코올 정책수립을 위한 지표 개발. 보건복지부.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민규 (1999).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이수영 (2006). 근로자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2), 113-136.

이충경 (200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이희중, 제갈정 (2002). 근로자 음주문제 프로그램개

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우진, 전현준, 이선미 (2006).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예방의학회지, 39(1), 21-29.

정태린, 박재용, 한창현 (2001). 음주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알코올 의존도와의 관련성. 보건복지연구, 6, 57-75.

제갈정 (2001). 한국인의 음주 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천성수, 박종순 (2000). 알코올에 대한 보건복지적 문제 및 대응방안.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 15-28.

최승희, 김명, 김광기 (2001). 서울 지역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에 관한 태도 및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2), 27-44.

한국경제경영연구원 (2005).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함정화, 김광기, 김명순 (2001). 산업장 근로자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1), 14-30.

Babor, T. F., Fuente, J. R., Saunders, J., & Grant, M. (1992).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health care. Geneva WHO.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 Factor Model. Psychol Assess, 6, 117-128.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 Abnorm Psychol, 97, 168-180.

Cumsille, P. E., Sayer, A. G., & Graham, J. W. (2000). Perceived Expose to Peer and Adult Drinking as Predictors of Growth in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during Adolescence. J Consult Clin Psychol, 68, 531-536.

Curran, P. J., Stice, E., & Chassin, L. (1997). Predicting Problem Drinking: A Test of an Interactive Social Learning Model. Alcoholism. Clin Exp Res, 21(8), 1379-1390.

Farrell, A. D. (199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ongitudinal Data: Strategies for examining Group differences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JJ Consult Clin Psychol*, 62, 477-487.

Windle, M. (1996). An Alcohol Involvement Typology for Adolescents: Convergent Validity and Longitudinal Stability. *J Stud Alcohol*, 57(6), 627-637.

- Abstract -

A Study on Motivation for Alcohol Use and Drinking Behavior of Employees by Social Pressure

*Kim, Hee Gerl**

Purpose: This paper is to analyze motivation and behavior of alcohol use of employees, and effects of social pressure on alcohol use of employee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with 341 employees in

Industrial Complex.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6, 2007 to July 11, 2007.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through Frequency, ANOVA, One-way ANOVA test. **Result:** Social motivation showed the highest mean among motivation of alcohol use, man showed higher mean than woman on confirmity motivation and affirmation motivation. Dangerous alcohol use showed the highest mean among behavior of alcohol use, man showed higher mean than woman on behavior of alcohol use. Effects of peer showed higher mean than effects of family, generally the more high effects of peer is, the more higher confirmity motivation, dangerous and dependent alcohol use showed. **Conclusion:** Therefore, to decrease alcohol use of employees must be prepared an alternatives to change drinking culture and recognition, and developed for working man and individual workplaces.

Key words : Drinking, Motivation for alcohol use, Drinking behavior, Social pressure

*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University